

산업별로 본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신경수*

I. 서론	<목 차>
II.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2. 산업별 및 성별 근로조건
1. 분석자료의 개관	IV. 산업별 및 성별 임금격차분석
2. 분석방법과 분석모형의 설정	1. 산업별 임금격차분석
III. 산업별 및 성별 취업구조와 근로조건	2. 성별 임금격차분석
1. 산업별 및 성별 취업구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근로자가 속한 '산업'은 노동시장의 성별 차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산업별 임금격차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변화가 적다는 것으로 그 발생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노동생산성이 산업별로 차이가 발생기 때문에 산업별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동이동이 산업간에 자유롭게 이뤄진다면 산업별 임금격차는 발생할 수 없겠지만 노동의 한계생산(marginal product)에 있어 산업별 격차가 존재한다면 산업별 임금격차는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산업간 또는 공업내부적으로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곳에서는 산업별 임금격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노동공급은 비탄력적이므로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별 임금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노동조합의 존재와 조직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산업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shin6683@dongguk.edu

의 임금수준은 높을 것이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한 산업일수록 임금수준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적 관행의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으로 사회전반적으로 성차별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조차도 임금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현재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근로자의 63.15%에 불과한 실정이다.¹⁾ 물론 이러한 임금격차에는 성별 인적자본 등의 차이에 기인한 임금격차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모든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배경 하에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산업별 취업구조 및 임금구조를 분석하였고, 산업별 임금격차와 각 산업내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논문의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등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산업별 취업구조와 임금구조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별 임금격차와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본 연구논문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한다.

II.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1. 분석자료의 개관

본 연구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노동부(Ministry of Labor)에서 전산업을 대상으로 10% 임의 추출한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자료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근로자의 수는 650,000명 수준이고, 이 중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40% 정도이다.

1) 2004년 현재 남성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454,737원이고,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50,249원이다.

자료출처 : 노동부

2. 분석방법과 분석모형의 설정

1) 산업별 임금격차의 분석모형

$$\begin{aligned}
 \ln Y_i = & \beta_0 + \beta_1 EDU_i + \beta_2 EXP_i + \beta_3 (EXP_i)^2 + \beta_4 TENYY_i \\
 & + \beta_5 (TENYY_i)^2 + \beta_6 CARR_i + \beta_7 SKILL_i + \beta_8 REG_i + \beta_9 IND1_i \\
 & + \beta_{10} IND2_i + \beta_{11} IND3_i + \beta_{12} IND5_i + \beta_{13} IND6_i + \beta_{14} ESIZE2_i \\
 & + \beta_{15} ESIZE3_i + \beta_{16} ESIZE4_i + \beta_{17} ESIZE5_i + \beta_{18} ESIZE6_i + \beta_{19} UNION_i \\
 & + \beta_{20} WKS_i + \beta_{21} FULL_i + \beta_{22} OCC1_i + \beta_{23} OCC2_i + \beta_{24} OCC4_i \\
 & + \beta_{25} OCC5_i + \beta_{26} MARR_i + \beta_{27} \ln WH_i
 \end{aligned} \tag{1}$$

<주석>

$IND4$: 참고변수, $ESIZE1$: 참고변수, $OCC3$: 참고변수

위 식에서 i = 근로자 개인, $\ln Y_i$ = 월 임금의 자연대수값, EDU_i = 교육
 년수, EXP_i = 경험년수, $TENYY_i$ = 근속년수, $CARR_i$ = 경력년수²⁾,
 $SKILL_i$ = 기술기능정도³⁾, IND_i = 산업⁴⁾, $ESIZE_i$ = 사업체규모⁵⁾,

2) 경력년수 10년을 기준으로 10년 이상은 더미변수 1, 10년 미만은 더미변수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3) 자격증소지자는 더미변수 1, 그 외의 근로자는 더미변수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4) <1995-1998년 자료 : 한국표준산업분류 6차 개정(1991년) 기준>

$IND1$ (광공업) = 광업(C) + 제조업(D)

$IND2$ (건설업) = 건설업(F)

$IND3$ (도소매, 음식숙박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G) + 숙박 및 음식점업(H)

$IND4$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K)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L) + 교육 서비스업(M)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N) +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O) + 가사 서비스업(P)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Q)

$IND5$ (전기, 운수, 창고, 금융)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E) + 운수, 창고 및 통신업(I) + 금융 및 보험업(J)

<1999-2000년 자료 : 한국표준산업분류 7차(1998), 8차 개정(2000년) 기준>

$IND1$ (농림, 어업) = 농업, 수렵업 및 임업(A) + 어업(B)

$IND2$ (광공업) = 광업(C) + 제조업(D)

$IND3$ (건설업) = 건설업(F)

$IND4$ (도소매, 음식숙박업) = 도매 및 소매업(G) + 숙박 및 음식점업(H)

$IND5$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 부동산 및 임대업(L) + 사업 서비스업(M) + 공공행정

$UNION_j =$ 노조가입 여부⁶⁾, $FULL_i$ ⁷⁾, OCC_i ⁸⁾, $MARR_j =$ 혼인상태⁹⁾,
 $\ln WH_j =$ 월근로시간의 자연대수값을 지칭한다.

2) 성별 임금격차 분석모형

성별 임금격차의 분석모형은 성변수 (SEX)¹⁰⁾를 분석모형의 독립변수에 포함시킨 단일임금함수이다. 산업별 산업내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N) + 교육 서비스업(O)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 기타 공공, 수리 및 서비스업(R) + 가사 서비스업(S) + 국제 및 외국기관(T)

$IND6$ (전기, 운수, 창고, 금융)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E) + 운수업(I) + 통신업(J) + 금융 및 보험업(K)

5) <1995-1998년>

$ESIZE1$: 10-29인, $ESIZE2$: 30-99인, $ESIZE3$: 100-299인

$ESIZE4$: 300-499인, $ESIZE5$: 500인 이상

<1999-2000년>

$ESIZE1$: 5-9인, $ESIZE2$: 10-29인, $ESIZE3$: 30-99인

$ESIZE4$: 100-299인, $ESIZE5$: 300-499인, $ESIZE6$: 500인 이상

6) 근로자가 근로원이면 더미변수 1, 비노조원이면 더미변수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7)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정상근무제이면 더미변수 1, 시간제 근무이면 더미변수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8) <1995-1999년 자료 : 한국표준직업분류 4차 개정(1992년) 기준>

$OCC1$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 + 전문가(2) + 기술공 및 준전문가(3)

$OCC2$ (사무직) = 사무직(4)

$OCC3$ (서비스, 판매직) =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5)

$OCC4$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6)

$OCC5$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직)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7) + 장치,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8) + 단순 노무직 근로자(9)

<2000년 자료 : 한국표준직업분류 5차 개정(2000년) 기준>

$OCC1$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0) + 전문가(1) + 기술공 및 준전문가(2)

$OCC2$ (사무 종사자) = 사무 종사자(3)

$OCC3$ (서비스, 판매직) = 서비스 종사자(4) + 판매 종사자(5)

$OCC4$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6)

$OCC5$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직)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 + 단순 노무직 종사자(9)

9) 근로자가 미혼인 경우는 더미변수 1, 근로자가 기혼인 경우는 더미변수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10) 성별 임금격차의 분석모형에서 성변수는 남성근로자의 경우는 1,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begin{aligned}
\ln Y_i = & \beta_0 + \beta_1 EDU_i + \beta_2 EXP_i + \beta_3 (EXP_i)^2 + \beta_4 TENYY_i \\
& + \beta_5 (TENYY_i)^2 + \beta_6 CARR_i + \beta_7 SKILL_i + \beta_8 REG_i + \beta_9 ESIZE_i \\
& + \beta_{10} UNION_i + \beta_{11} WKS_i + \beta_{12} FULL_i + \beta_{13} OCC1 + \beta_{14} OCC2 \\
& + \beta_{15} OCC4 + \beta_{16} OCC5 + \beta_{17} MARR_i + \beta_{18} \ln LH_i + \beta_{19} SEX_i
\end{aligned}$$

(2)

Ⅲ. 산업별 및 성별 취업구조와 근로조건

1. 산업별 및 성별 취업구조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취업구조를 산업별 및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산업의 분류기준은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1>은 1963년부터 1990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표 2>는 1995년 이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985년과 1990년 자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5차 개정(1984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1995년 자료는 6차 개정(1991년), 2000년과 2005년은 8차 개정(2000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8차에 걸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산업의 연속성이 이뤄지지 않지만 유사산업을 연결하여 그 분포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1963년~1990년까지의 산업별 및 성별 취업자 비율을 분석해 보자.

첫째, 산업별 취업자비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산업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산업은 대체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어업」산업을 1963년 63.0%에서 1990년 17.9%로 크게 하락하였다.

둘째, 1990년을 기준으로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광공업」산업이 27.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산업이 21.8%, 「농림·어업」산업이 17.9%, 「건설업」산업이 7.4%,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산업이 5.2%, 「운수, 창고 및 통신업」산업이 5.1%, 「전기, 가스업」산업이 0.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셋째,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성별로 구분하여 두 번째 구성비($M_i / \sum M_i$, $F_i / \sum F_i$)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자. 1990년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근로

자의 구성비는 전체 구성비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운수, 창고 및 통신업」산업의 비율은 7.9%로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산업의 비율 5.5%보다 더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남성근로자의 경우와는 다른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산업이 28.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광공업」산업이 28.2%, 「농림·어업」산업이 20.3%,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산업이 4.9%, 「건설업」산업이 1.8%, 「운수, 창고 및 통신업」산업이 1.1%, 「전기, 가스업」산업이 0.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분포비율이 높은 상위 3개의 산업 즉 「도소매, 음식, 숙박업」산업, 「광공업」산업, 「농림·어업」산업에 76.8%의 여성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다. 남성근로자의 경우는 이러한 상위 3개의 산업에 60.8%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분포는 소수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산업별 및 성별 취업자 비율(1963~1990)

(단위 : %)

구 분	연 도	1963		1970		1975		1980		1985		1990	
농림, 어업	계	100	63.0	100	50.4	100	45.7	100	34.0	100	24.9	100	17.9
	남성비	62.0	59.9	58.5	46.4	58.6	42.1	56.3	31.0	56.6	23.1	53.8	16.3
	여성비	38.0	68.7	41.5	57.3	41.4	51.9	43.7	39.0	43.4	27.8	46.2	20.3
광공업	계	100	8.7	100	14.3	100	19.1	100	22.5	100	24.4	100	27.6
	남성비	72.1	9.6	68.9	15.5	66.9	20.1	62.1	22.6	62.9	25.2	58.3	27.2
	여성비	27.7	6.9	31.1	12.2	33.1	17.4	37.9	22.3	37.1	23.2	41.7	28.2
전기, 가스업	계	-	-	-	-	-	-	100	0.3	100	0.3	100	0.4
	남성비	-	-	-	-	-	-	88.6	0.5	92.7	0.4	87.1	0.6
	여성비	-	-	-	-	-	-	11.4	0.1	7.3	0.1	12.9	0.1
건설업	계	100	2.5	100	2.9	100	4.4	100	6.2	100	6.1	100	7.4
	남성비	90.6	3.5	97.9	4.5	95.5	6.5	91.3	9.1	92.9	9.3	89.9	11.3
	여성비	8.9	0.6	2.1	0.2	4.9	0.6	8.5	1.4	7.1	1.1	10.1	1.8
도소매, 음식, 숙박업	계	-	-	-	-	-	-	100	19.2	100	22.6	100	21.8
	남성비	-	-	-	-	-	-	51.4	16.0	48.2	17.8	47.0	17.3
	여성비	-	-	-	-	-	-	48.6	24.4	51.8	30.0	53.0	28.3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계	-	-	-	-	-	-	100	4.5	100	4.7	100	5.1
	남성비	-	-	-	-	-	-	91.1	6.7	91.3	7.0	91.3	7.9
	여성비	-	-	-	-	-	-	9.0	1.1	8.8	1.1	8.7	1.1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계	-	-	-	-	-	-	100	2.4	100	3.8	100	5.2
	남성비	-	-	-	-	-	-	69.0	2.7	65.7	4.0	62.2	5.5
기타	여성비	-	-	-	-	-	-	31.0	2.0	34.5	3.3	37.9	4.9
	계	-	-	-	-	-	-	100	10.9	100	13.3	100	14.6
기타	남성비	-	-	-	-	-	-	65.7	11.6	60.4	13.1	57.0	14.0
	여성비	-	-	-	-	-	-	34.3	9.8	39.6	13.5	43.0	15.4

(주1) 산업분류기준

1985-1990년 : 한국표준산업분류 5차 개정(1984년) 기준

(주2)

- 남성비에서 첫 번째 남성비는 해당 산업의 전체 근로자 중에서 남성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M_i/T_i)을 의미하고, 두 번째 남성비는 전체 남성근로자 중에서 해당 산업의 남성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M_i/\sum M_i$)을 의미한다. (i : 개별 산업)
- 여성비도 남성비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여성비는 F_i/T_i 를 의미하고, 두 번째 여성비는 $F_i/\sum F_i$ 를 의미한다.

(주3) 자료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다음으로 <표 2>를 통해 1995년 이후의 산업별 및 성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자.

첫째, 「농림·어업」산업과 「광공업」산업은 꾸준한 하락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의 추진과 자본주의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이 분야의 산업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산업은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산업의 경우는 산업구조조정으로 이 부문의 고용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둘째, 2005년 기준으로 「사업근로조건, 공공서비스 및 기타」산업이 3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이 25.4%, 「광공업」산업이 18.6%, 「전기, 운수, 통신, 금융」산업이 9.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림, 어업」산업의 비중은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에는 7.9%의 매우 낮은 비중을 보임으로써 전통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건설업」산업의 비중과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셋째,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두 번째 구성비($M_i/\sum M_i, F_i/\sum F_i$)를 기준으로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2005년을 기준으로 남성근로자의 경우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산업이 26.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광공업」산업이 21.3%,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이 19.7%, 「전기, 운수, 통신, 금융」산업과 「건설업」산업이 12.4%, 「농림, 어업」산업이

7.2%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산업과 「전기, 운수, 창고, 금융」산업의 분포비율은 증가추세에 있고, 그 외의 산업에서는 하락추세에 있거나 별다른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넷째,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남성근로자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이 35.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산업이 27.2%, 「광공업」산업이 17.5%, 「농림, 어업」산업이 12.2%, 「전기, 운수, 통신, 금융」산업이 6.5%, 「건설업」산업이 1.5%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여성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산업이 3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이 33.3%, 「광공업」산업이 14.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산업에서 남성근로자의 분포는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지만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오히려 상승추세에 있거나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산업부문은 전술했던 바와 같이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기회의 확대에도 기인하지만 이 산업부문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2005년을 기준으로 여성근로자의 「농림·어업」산업부문의 분포는 8.9%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산업부문의 분포가 많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근로자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건설업」산업부문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분포가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산업부문에서는 여전히 남성 지배적인 산업이라는 의식이 팽배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등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5년을 기준으로 「건설업」산업 부문 내에서의 절대적인 성구성비(M_i/T_i , F_i/T_i)를 살펴보면 남성근로자가 91.3%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남성근로자 중심의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과 <표 2>에서 제시한 산업별 취업비율은 분석의 편의상 산업대분류를 기준으로 분석되었지만 산업분류를 세분화하게 되면 동일 산업 내에서조차도 여성근로자는 특정의 세부산업에 집중분포되어 있다.

< 표 2 > 산업별 및 성별 취업자 비율(1995~2005)

(단위 : %)

구 분	연 도	1995		2000		2005	
		계	성비	계	성비	계	성비
농림, 어업	계	100	12.4	100	10.6	100	7.9
	남성비	52.4	10.9	52.2	9.5	53.2	7.2
	여성비	47.6	14.6	47.8	12.2	46.8	8.9
광공업	계	100	23.6	100	20.4	100	18.6
	남성비	63.4	25.1	64.4	22.4	66.7	21.3
	여성비	36.6	21.4	35.6	17.5	33.3	14.9
건설업	계	100	9.3	100	7.5	100	7.9
	남성비	90.4	14.1	91.5	11.7	91.3	12.4
	여성비	9.6	2.2	8.5	1.5	8.7	1.7
도소매, 음식숙박업	계	100	26.3	100	27.2	100	25.4
	남성비	49.0	21.6	46.5	21.6	45.3	19.7
	여성비	51.0	33.2	53.5	35.1	54.7	33.3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계	100	19.2	100	24.6	100	30.3
	남성비	53.6	17.3	54.1	22.7	51.8	26.9
	여성비	46.3	22.0	45.9	27.2	48.2	35.1
전기, 운수, 창고, 금융	계	100	9.1	100	9.8	100	9.8
	남성비	71.0	10.8	72.7	12.2	73.7	12.4
	여성비	29.0	6.5	27.3	6.5	26.3	6.2

(주1) 산업분류기준

- ① 1995년 자료 : 한국표준산업분류 6차 개정(1991년) 기준
 - 도소매, 음식숙박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G) + 숙박 및 음식점업(H)
 -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K)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L) + 교육 서비스업(M)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N) +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O) + 가사 서비스업(P)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Q)
 - 전기, 운수, 창고, 금융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E) + 운수, 창고 및 통신업(I) + 금융 및 보험업(J)
 - ② 2000년 자료, 2005년 자료 :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2000년) 기준
 - 농림, 어업 = 농업, 수렵업 및 임업(A) + 어업(B)
 - 광공업 = 광업(C) + 제조업(D)
 - 도소매, 음식숙박업 = 도매 및 소매업(G) + 숙박 및 음식점업(H)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 부동산 및 임대업(L) + 사업 서비스업(M) + 공공행정(N) + 교육 서비스업(O)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 기타 공공, 수리 및 서비스업(R) + 가사 서비스업(S) + 국제 및 외국기관(T)
 - 전기, 운수, 창고, 금융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E) + 운수업(I) + 통신업(J) + 금융 및 보험업(K)
- (주2) 자료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산업별 및 성별 근로조건

산업별 임금격차에 관한 회귀분석을 하기 이전에 산업별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을 비교하고, 이러한 평균값들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 평균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모든 연도에 걸쳐 「전기, 운수, 창고, 금융」산업에서의 평균임금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98년에는 「광공업」산업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모두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게 관찰되고 있다.

둘째,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인적자본변수인 교육년수변수의 평균값과 평균교육년수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산업별로 비교분석해보자. 평균교육년수의 산업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산업별로 평균교육년수가 모든 연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산업에서의 평균교육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 「전기, 운수, 창고, 금융」산업, 「광공업」산업의 순이다.¹¹⁾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산업대분류별로 산업별 평균교육수준과 평균임금수준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전기, 운수, 창고, 금융」산업의 평균임금수준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교육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고, 「건설업」산업의 평균교육수준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수준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별 평균교육년수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평균교육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교육에 대한 인적자본의 투자확대로 인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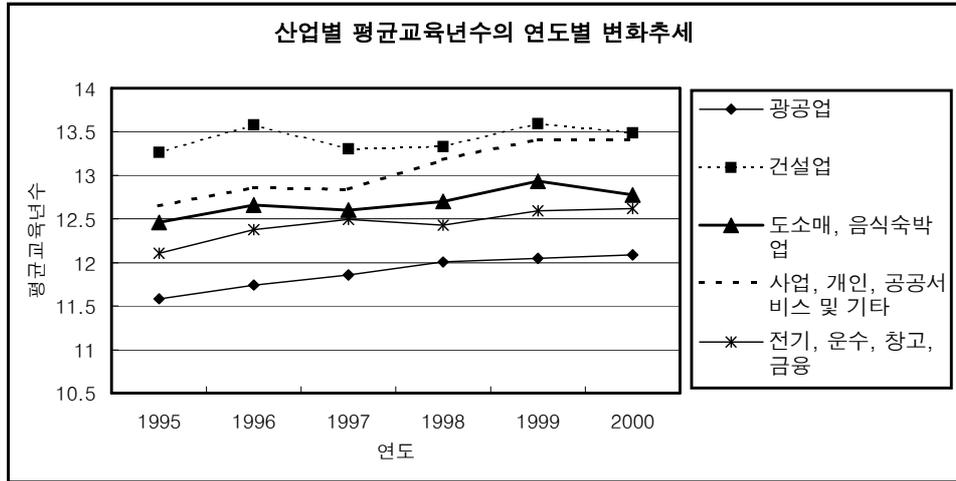
<표 3> 산업별 평균교육년수의 연도별 변화추세

(단위 : 년)

산 업 \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광공업	11.58	11.75	11.85	12.01	12.05	12.09
건설업	13.27	13.58	13.31	13.33	13.59	13.49
도소매, 음식숙박업	12.46	12.66	12.60	12.70	12.93	12.77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12.65	12.85	12.84	13.18	13.41	13.40
전기, 운수, 창고, 금융	12.10	12.38	12.49	12.43	12.59	12.62

11) 「농림, 어업」산업은 1999년과 2000년 이상의 자료에만 포함되어 있어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림 1> 산업별 평균교육년수의 연도별 변화추세



셋째, 노동시장에서의 평균경험년수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산업과 「전기, 운수, 창고, 금융」산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건설업」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산업별 평균근속년수에 있어서는 「전기, 운수, 창고, 금융」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건설업」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의 평균근속년수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근속년수의 산업별 차이는 직종대분류별 평균근속년수의 차이에서처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섯째, 월근로시간에 있어서는 모든 연도에서 「광공업」산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건설업」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에서의 월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표 4> 1995년 산업별 평균값 비교

구분 변수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평균값	St Dev	평균값	St Dev	평균값	St Dev
Y	1,119,846	1,999,850	1,338,891	2,458,418	1,104,412	2,304,738
EDU	11.58396	9.58049	13.26680	8.73804	12.45937	9.83354
EXP	16.78966	42.68185	15.51840	42.86524	13.01470	44.15550
TENYY	5.01751	18.75633	4.73084	21.69408	4.11375	19.33122
WH	219.08973	141.44239	204.20427	93.74627	205.11209	126.35161
관측치	265,664		28,403		48,246	

구분 변수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 운수, 창고, 금융	
	평균값	St Dev	평균값	St Dev
<i>Y</i>	1,245,234.2	2,675,998.3	1,348,968.7	2,689,873.6
<i>EDU</i>	12.65450	10.24739	12.10427	9.79004
<i>EXP</i>	19.51799	46.36599	17.71223	41.41616
<i>TENYY</i>	5.26162	19.70323	6.62544	24.42505
<i>WH</i>	210.58424	166.21022	210.20606	150.36849
관측치	85,509		94,310	

<주석> St Dev : Standard Deviation(표준편차)

<표 5> 2000년 산업별 평균값 비교

구분 변수	농림, 어업		광공업		건설업	
	평균값	St Dev	평균값	St Dev	평균값	St Dev
<i>Y</i>	1,640,242.3	1,755,148.1	1,540,255.2	2,706,904.9	1,631,289.8	3,251,318.9
<i>EDU</i>	12.86786	5.35754	12.08557	7.98737	13.48689	8.14987
<i>EXP</i>	18.08775	26.78301	17.94946	36.65052	16.68957	42.96144
<i>TENYY</i>	6.81900	16.96898	5.26583	18.84426	3.53412	17.20166
<i>WH</i>	207.63902	72.99210	217.26724	134.53232	197.75069	85.42397
관측치	2,906		242,866		29,662	

구분 변수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 운수, 창고, 금융	
	평균값	St Dev	평균값	St Dev	평균값	St Dev
<i>Y</i>	1,412,480.8	3,665,790.7	1,669,995.3	3,844,393.2	2,047,351.6	5,243,478.9
<i>EDU</i>	12.77480	9.72514	13.40221	8.98114	12.61915	8.94080
<i>EXP</i>	14.99750	43.55960	17.95985	43.10090	18.20497	38.97493
<i>TENYY</i>	3.65743	18.34139	5.00385	20.40171	6.77832	23.42641
<i>WH</i>	195.82430	121.15463	202.38566	149.36063	206.03223	125.02818
관측치	79,498		122,066		100,365	

<주석> St Dev : Standard Deviation(표준편차)

IV. 산업별 및 성별 임금격차분석

1. 산업별 임금격차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별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들은 산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대표적 인적자본인 교육년수의 평균값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낮게 관찰되었고, 「

전기, 운수, 창고, 금융」산업의 평균임금수준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교육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인적자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평균값들의 비교분석에서 제외되었던 그 밖의 인적자본들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들 그리고 근로자 개인의 특성들도 산업별로 차이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자본들의 차이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들의 차이 그리고 근로자 개인의 특성들을 모두 통제한 후의 순수한 산업별 임금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산업별 평균임금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을 참고변수로 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산업변수의 추정계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후 해당 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과의 임금격차를 의미한다.

분석결과 모든 인적자본변수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수, 개인별 특성변수들을 통제한 후의 산업별 임금격차는 평균임금을 단순비교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평균임금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전기, 운수, 창고, 금융」산업만이 참고변수인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에 비해 더 높은 임금혜택을 받고 있었고, 다른 산업에서는 뚜렷한 임금격차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산업은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후 임금격차를 분석하였을 때 모든 연도에서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보다 오히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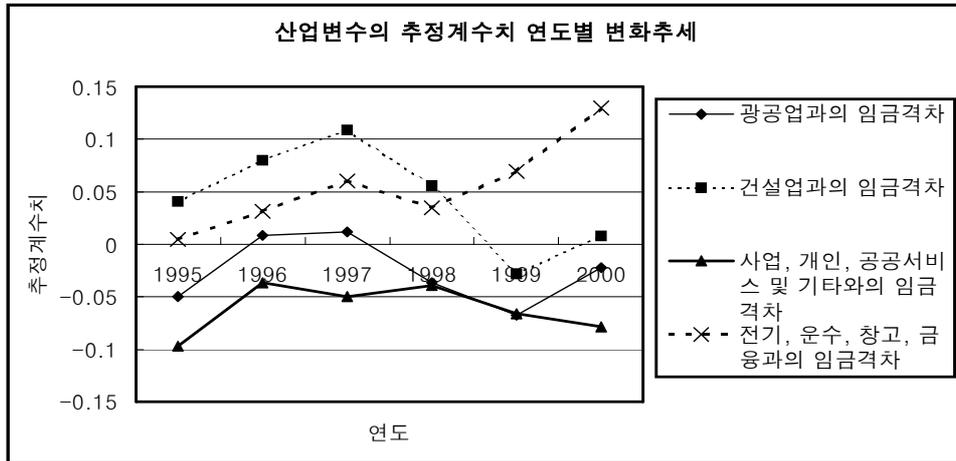
산업별 임금격차를 산업변수의 연도별 추정계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전기, 운수, 창고, 금융」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과의 임금격차,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과의 임금격차만이 뚜렷하게 관찰될 뿐 다른 분야에서는 추정계수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을 뿐 아니라 뚜렷한 임금격차를 찾아볼 수 없었다.¹²⁾ 그리고 이러한 산업별 임금격차가 직종별 임금격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별 임금격차는 해를 거듭하면서 심화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개선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12) 「농림, 어업」산업은 1999년과 2000년의 자료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별 임금격차의 비교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 6> 산업변수의 추정계수치 연도별 변화추세

구분 연도	광공업과의 임금격차	건설업과의 임금격차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와의 임금격차	전기, 운수, 창고, 금융과의 임금격차
1995	-0.04967	0.04084	-0.09719	0.00458
1996	0.00822	0.08016	-0.03644	0.03169
1997	0.01196	0.10901	-0.04998	0.06010
1998	-0.03639	0.05588	-0.03932	0.03469
1999	-0.06749	-0.02837	-0.06623	0.06957
2000	-0.02229	0.00784	-0.07878	0.12951

<그림 2> 산업별 임금격차의 연도별 변화추세



<표 7> 산업별 임금격차

연도 변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i>Intercept</i>	10.54119 (165.05)	11.27982 (178.47)	11.36009 (161.13)	11.44988 (167.94)	10.89409 (196.45)	10.70829 (197.43)
<i>EDU</i>	0.05784 (64.69)	0.05679 (61.26)	0.05597 (58.91)	0.05702 (57.78)	0.06004 (65.26)	0.05710 (63.83)
<i>EXP</i>	0.02783 (44.11)	0.02732 (41.14)	0.02897 (44.73)	0.02609 (37.45)	0.02650 (41.61)	0.02678 (43.05)
<i>EXP²</i>	-0.00053 (-44.18)	-0.00053 (-42.59)	-0.00057 (-46.90)	-0.00049 (-37.46)	-0.00049 (-40.70)	-0.00053 (-44.40)
<i>TENY</i>	0.05541 (65.37)	0.05622 (66.85)	0.05007 (57.96)	0.04817 (56.00)	0.04272 (52.39)	0.05134 (64.85)
<i>TENY²</i>	-0.00114 (-31.56)	-0.00119 (-33.79)	-0.00103 (-28.19)	-0.00076 (-22.10)	-0.00076 (-22.64)	-0.00105 (-31.85)
<i>CARR</i>	0.05014 (10.22)	0.10303 (20.69)	0.08666 (17.57)	0.03870 (7.75)	0.09225 (19.79)	0.09783 (21.36)
<i>SKILL</i>	0.06556	0.04066	0.04842	0.07671	0.03565	0.01754

	(16.94)	(10.08)	(12.07)	(14.64)	(9.77)	(4.93)
<i>REG</i>	0.04407 (11.09)	0.02431 (6.12)	0.05334 (13.29)	0.02486 (5.91)	0.04329 (11.17)	0.09335 (24.77)
<i>IND1</i>	-0.04967 (-8.16)	0.00822 (1.35)	0.01196 (1.94)	-0.03639 (-5.56)	0.01960 (0.90)	0.01887 (0.82)
<i>IND2</i>	0.04084 (4.71)	0.08016 (8.87)	0.10901 (12.57)	0.05588 (6.05)	-0.06749 (-11.80)	-0.02229 (-4.03)
<i>IND4</i>	-0.09719 (-14.43)	-0.03644 (-5.56)	-0.04998 (-7.55)	-0.03932 (-5.85)	-0.02837 (-3.25)	0.00784 (0.92)
<i>IND5</i>	0.00458 (0.68)	0.03169 (4.68)	0.06010 (8.79)	0.03469 (4.97)	-0.06623 (-11.23)	-0.07878 (-13.41)
<i>IND6</i>	-	-	-	-	0.06957 (10.87)	0.12951 (20.65)
<i>ESIZE2</i>	-0.01264 (-2.79)	0.000024 (0.01)	0.00572 (1.24)	-0.00164 (-0.34)	0.05707 (9.87)	0.09567 (18.25)
<i>ESIZE3</i>	0.00889 (1.67)	0.00239 (0.45)	0.03364 (6.38)	0.01462 (2.66)	0.10705 (18.23)	0.11798 (21.87)
<i>ESIZE4</i>	0.04883 (6.72)	0.06879 (9.18)	0.07567 (9.94)	0.06921 (8.65)	0.13046 (20.20)	0.15867 (26.15)
<i>ESIZE5</i>	0.12670 (22.64)	0.15086 (26.54)	0.19033 (32.45)	0.16695 (27.33)	0.18308 (20.09)	0.24984 (28.53)
<i>ESIZE6</i>	-	-	-	-	0.28960 (41.45)	0.29331 (43.12)
<i>UNION</i>	0.05349 (13.42)	0.03527 (8.39)	0.02521 (5.81)	0.07156 (15.84)	0.08330 (19.20)	0.06927 (15.66)
<i>WKS</i>	0.17393 (14.28)	0.11356 (9.01)	0.22563 (17.07)	0.16023 (9.63)	0.26088 (21.25)	0.17000 (17.14)
<i>FULL</i>	-0.02667 (-0.80)	-0.00801 (-0.24)	-0.05694 (-1.39)	0.10059 (2.73)	0.16338 (11.93)	0.19320 (15.84)
<i>OCC1</i>	0.19684 (21.52)	0.23586 (26.02)	0.22846 (24.18)	0.23893 (24.09)	0.30104 (36.22)	0.22727 (27.18)
<i>OCC2</i>	0.06651 (7.60)	0.07763 (8.91)	0.05460 (5.92)	0.08560 (8.87)	0.15522 (18.79)	0.03139 (3.87)
<i>OCC4</i>	0.26517 (5.32)	-0.09012 (-1.04)	0.22146 (4.09)	0.09058 (1.86)	0.20679 (5.23)	0.13712 (3.60)
<i>OCC5</i>	-0.00501 (-0.59)	-0.00507 (-0.59)	-0.01458 (-1.63)	-0.01794 (-1.91)	0.08349 (10.27)	-0.03045 (-3.76)
<i>MARR</i>	-0.08347 (-16.62)	-0.05723 (-10.94)	-0.06000 (-11.57)	-0.06120 (-11.56)	-0.05711 (-11.96)	-0.07228 (-15.48)
<i>ln WH</i>	0.35993 (35.93)	0.24508 (24.66)	0.23216 (22.58)	0.19778 (18.86)	0.23600 (23.80)	0.31493 (31.77)
<i>N</i>	522,132	534,564	530,869	474,177	541,987	577,363
<i>R²</i>	0.6179	0.5887	0.5966	0.5942	0.5679	0.5941
<i>adj R²</i>	0.6177	0.5885	0.5964	0.5940	0.5677	0.5939
<i>F-value</i>	2580.10	2433.00	2396.88	2247.56	2338.76	2691.21

<주석> 괄호 안은 추정계수치의 t값

2. 성별 임금격차분석

산업별 임금수준과 산업별 임금격차에 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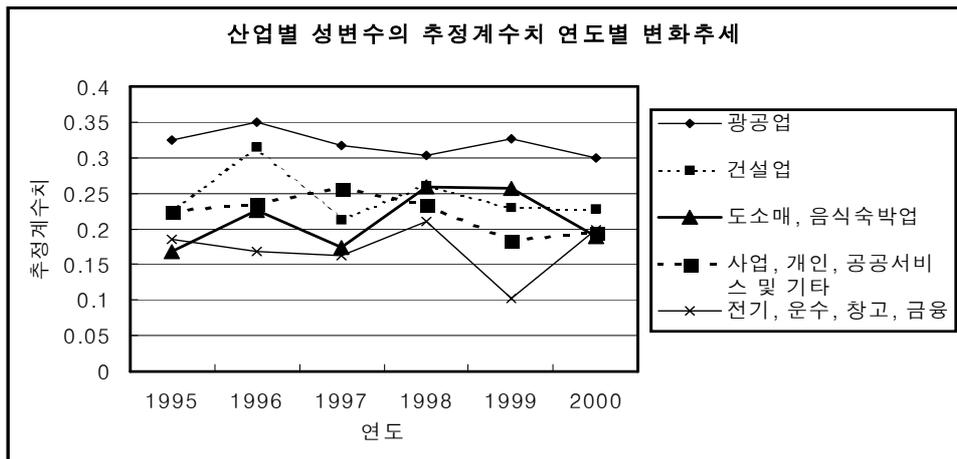
업내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내에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결과 「광공업」산업과 「건설업」산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기, 운수, 창고, 금융」산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¹³⁾ 이러한 산업별 산업내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성변수(*SEX*)의 추정계수치를 통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성변수의 추정계수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뚜렷한 변화추세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

<표 8> 산업별 성변수의 추정계수치 연도별 변화추세

산업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광공업		0.32381	0.34920	0.31598	0.30361	0.32753	0.29865
건설업		0.22155	0.31474	0.21233	0.26056	0.22939	0.22740
도소매, 음식숙박업		0.16898	0.22540	0.17329	0.25866	0.25659	0.18941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0.22373	0.23634	0.25669	0.23320	0.18357	0.19596
전기, 운수, 창고, 금융		0.18527	0.16813	0.16269	0.21078	0.10256	0.19881

<그림 3> 산업별 산업내 성별 임금격차의 연도별 변화추세



13) 「농림, 어업」산업은 1999년과 2000년의 자료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성별 임금격차의 비교분석에서 제외시켰다.

< 표 9 > 1995년 산업별 산업내 성별 임금격차

변수 \ 산업	IND1	IND2	IND3	IND4	IND5
<i>Intercept</i>	10.15634 (135.45)	10.39899 (32.05)	10.60243 (44.03)	11.68450 (35.90)	11.31601 (64.06)
<i>EDU</i>	0.03605 (31.95)	0.03642 (10.00)	0.03397 (9.86)	0.05334 (26.13)	0.03374 (13.96)
<i>EXP</i>	0.01864 (24.78)	0.03577 (14.19)	0.03475 (14.11)	0.02152 (15.78)	0.01847 (9.40)
<i>EXP²</i>	-0.00035 (-24.89)	-0.00061 (-12.99)	-0.00075 (-14.54)	-0.00037 (-15.04)	-0.00042 (-11.44)
<i>TENYY</i>	0.05796 (54.36)	0.04530 (14.90)	0.05482 (16.09)	0.06174 (34.03)	0.04368 (20.22)
<i>TENYY²</i>	-0.00152 (-30.18)	-0.00090 (-6.95)	-0.00152 (-8.72)	-0.00125 (-17.57)	-0.00058 (-7.14)
<i>CARR</i>	0.05615 (9.43)	-0.00542 (-0.29)	0.05762 (3.04)	-0.03056 (-2.94)	0.00160 (0.13)
<i>SKILL</i>	0.07079 (13.94)	0.05234 (3.90)	0.10022 (7.03)	-0.00117 (-0.14)	0.00646 (0.53)
<i>REG</i>	0.08464 (15.56)	0.13103 (9.22)	0.05163 (4.16)	0.00937 (1.29)	0.07337 (7.23)
<i>ESIZE</i>	0.16226 (34.74)	0.13901 (7.58)	0.12614 (8.32)	0.03659 (4.25)	0.04716 (4.31)
<i>UNION</i>	0.02344 (5.16)	-0.08436 (-4.82)	0.05195 (4.44)	0.11122 (13.87)	0.10299 (10.03)
<i>WKS</i>	0.13006 (8.46)	0.30472 (8.24)	0.30306 (8.47)	0.07071 (2.87)	0.18808 (5.08)
<i>FULL</i>	-0.06244 (-1.80)	-	0.62062 (5.62)	0.56462 (1.82)	-0.02463 (-0.31)
<i>OCC1</i>	0.08773 (5.41)	0.27357 (3.30)	0.12526 (6.67)	0.27653 (15.48)	0.13667 (4.61)
<i>OCC2</i>	-0.00061 (-0.04)	0.19990 (2.41)	-0.01299 (-0.85)	0.09589 (5.39)	0.00784 (0.28)
<i>OCC4</i>	-0.13879 (-1.99)	-	-	0.23017 (3.94)	-0.24703 (-0.68)
<i>OCC5</i>	-0.09043 (-5.93)	0.26432 (3.22)	-0.12626 (-7.19)	-0.02029 (-1.14)	-0.19218 (-6.40)
<i>MARR</i>	-0.05978 (-9.82)	-0.10794 (-6.17)	-0.03744 (-2.29)	-0.04352 (-3.86)	-0.09082 (-6.99)
<i>ln WH</i>	0.47035 (39.82)	0.34926 (6.41)	0.24094 (5.67)	0.01982 (1.01)	0.28999 (10.43)
<i>SEX</i>	0.32381 (68.88)	0.22155 (10.00)	0.16898 (11.24)	0.22373 (26.62)	0.18527 (14.40)
<i>R²</i>	0.7059	0.6958	0.6386	0.7220	0.5337
<i>adj R²</i>	0.7057	0.6933	0.6362	0.7213	0.5324
<i>F-value</i>	2630.27	273.44	258.80	1042.29	403.82

<분류 주석> IND1 : 광공업, IND2 : 건설업, IND3 : 도소매, 음식숙박업
 IND4 :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IND5 : 전기, 운수, 창고, 금융
 괄호 안은 추정계수치의 t값

<표 10> 2000년 산업별 산업내 성별 임금격차

변수 \ 산업	IND1	IND2	IND3	IND4	IND5	IND6
<i>Intercept</i>	9.97687 (18.37)	10.62129 (145.30)	8.69700 (21.32)	10.91721 (57.23)	12.05387 (108.94)	11.05050 (69.43)
<i>EDU</i>	0.05251 (6.12)	0.04006 (33.06)	0.05347 (12.42)	0.04398 (15.28)	0.05674 (28.97)	0.03485 (14.70)
<i>EXP</i>	0.01535 (2.69)	0.02104 (26.74)	0.04101 (13.51)	0.01609 (8.15)	0.02760 (20.59)	0.01519 (8.18)
<i>EXP²</i>	-0.00021 (-1.99)	-0.00041 (-26.66)	-0.00067 (-12.54)	-0.00035 (-8.97)	-0.00051 (-20.83)	-0.00033 (-9.20)
<i>TENYY</i>	0.05434 (8.09)	0.04755 (45.32)	0.05508 (12.82)	0.06162 (21.10)	0.05466 (32.47)	0.05169 (26.91)
<i>TENYY²</i>	-0.00134 (-5.66)	-0.00107 (-23.53)	-0.00174 (-7.75)	-0.00177 (-10.75)	-0.00119 (-17.95)	-0.00106 (-14.59)
<i>CARR</i>	0.03554 (0.85)	0.07947 (13.81)	0.05241 (2.59)	0.16063 (10.25)	0.03258 (3.15)	0.07818 (6.72)
<i>SKILL</i>	0.00402 (0.13)	-0.00220 (-0.51)	-0.02725 (-1.55)	0.03291 (2.42)	0.01477 (1.87)	-0.07591 (-6.15)
<i>REG</i>	0.06949 (1.21)	0.06077 (10.25)	0.04373 (2.67)	0.15938 (15.01)	0.11353 (15.50)	0.14788 (15.37)
<i>ESIZE</i>	0.02079 (0.20)	0.19042 (32.21)	0.27280 (12.16)	0.19747 (10.43)	0.16798 (16.30)	0.02852 (2.26)
<i>UNION</i>	0.00185 (0.05)	0.07670 (13.34)	0.13727 (5.97)	0.07969 (5.58)	0.15148 (16.20)	0.09885 (10.48)
<i>WKS</i>	0.25026 (3.41)	0.09214 (6.64)	0.10215 (2.62)	0.22630 (9.04)	0.17201 (7.22)	0.24108 (8.46)
<i>FULL</i>	0.09061 (0.85)	0.02846 (1.68)	0.01723 (0.27)	0.31501 (11.34)	0.33947 (11.67)	0.24280 (5.42)
<i>OCC1</i>	-0.08579 (-1.42)	0.10099 (5.55)	0.09996 (1.60)	0.18099 (10.54)	0.16376 (8.36)	0.20059 (7.54)
<i>OCC2</i>	-0.20457 (-3.92)	-0.05689 (-3.14)	-0.00997 (-0.16)	0.03529 (2.51)	0.02895 (1.42)	-0.04358 (-1.74)
<i>OCC4</i>	-0.41414 (-6.40)	-0.45227 (-3.59)	-	-0.28242 (-0.58)	0.16108 (2.98)	0.22272 (1.48)
<i>OCC5</i>	-0.21390 (-3.81)	-0.13836 (-7.81)	0.10652 (1.67)	-0.07834 (-4.69)	-0.16404 (-8.07)	-0.17475 (-6.35)
<i>MARR</i>	-0.07991 (-1.98)	-0.04214 (-7.04)	-0.01765 (-0.80)	-0.07171 (-5.20)	-0.05811 (-5.58)	-0.08639 (-7.07)
<i>ln WH</i>	0.52119 (5.39)	0.42339 (34.97)	0.71194 (9.69)	0.27861 (7.64)	0.01972 (0.96)	0.34239 (12.17)
<i>SEX</i>	0.25062 (5.91)	0.29865 (60.31)	0.22740 (8.53)	0.18941 (15.90)	0.19596 (23.96)	0.19881 (16.08)
<i>R²</i>	0.6505	0.6493	0.5809	0.6316	0.6195	0.5654
<i>adj R²</i>	0.6378	0.6490	0.5771	0.6300	0.6188	0.5644
<i>F-value</i>	51.52	2280.45	153.29	411.56	951.74	544.93

<분류 주석> IND1 : 농림, 어업, IND2 : 광공업, IND3 : 건설업, IND4 : 도소매, 음식숙박업
IND5 :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IND6 : 전기, 운수, 창고, 금융
괄호 안은 추정계수치의 t값

V. 결 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산업간에는 명시적인 임금격차를 보이며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가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참가의 증대로 인한 노동력 구성에서의 ‘여성비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논문에서는 「임금구조 기본 통계 조사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임금격차를 여성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와 역할증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 취업자비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산업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산업은 대체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의 「농림·어업」산업부분의 분포는 2005년을 기준으로 8.9%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건설업」산업부문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분포가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즉 여성근로자들은 특정 산업에 집중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별로 성별 분절화현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산업에서 남성근로자의 분포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었지만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오히려 상승추세에 있거나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 산업부문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기회의 확대에도 기인하지만 이 산업부문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논문에서 제시한 산업별 취업비율은 분석의 편의상 산업대분류를 기준으로 분석되었지만 산업분류를 세분화하게 되면 동일 산업내에서조차도 여성근로자는 특정의 세부산업에 집중분포되어 있다.

둘째, 산업별 평균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모든 연도에 걸쳐 「전기, 운수, 창고, 금융」산업에서의 평균임금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광공업」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산업의 임금수준이 비교적 낮게 관찰되었다.

셋째,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의 순수한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별 임금격차

는 모든 산업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산업 내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광공업」산업과 「건설업」산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기, 운수, 창고, 금융」산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업내부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급 여성노동력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의 제거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중요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1. 노미혜 외(1990), “남녀근로자 임금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 류옥란(1998), “한국의 산업화와 성별 격차의 변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3. 박영범(199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분석”, 『한국노동연구』 제2집, 한국노동연구원, pp.27~40.
4. 신경수(2002),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직종분절화현상과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5. 허 식(2003), “산업과 직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원인분석”, 『응용경제』 제5권 제3호, 한국응용경제학회, pp.57~74.

[국외문헌]

1. Blau, F. D. and Beller, A. H.(1988), “Trends in Earnings Differentials by Gender, 1971-1981”,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41(4), pp.513~529.
2. Brinton, Mary C.(1993), *Women and the Economic Miracl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 Edgeworth, F. Y.(1992), “Equal Pay to Men and Women for Equal Work”, *Economic Journal*, Vol. 32, Dec.
4. Fields J. and E. N. Wolff(1995),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and the Gender Wage Gap”,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Vol. 49, No. 1, 105-120.
5. Gunderson, M.(1989),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and Policy Respons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7, No. 1, 46-72.
6. Kidd, M. P. and Michael Shannon(1996), “Does the Level of Occupational Aggregation Affect Estimates of the Gender Wage Gap”,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49, No. 2, 317-329.
7. Krueger, A. B. and L. H. Summers(1988), “Efficiency Wages and Inter-Industry Wage Structure”, *Econometrica*, Vol. 56, No. 2, 259-293.
8. Oaxaca, R. L.(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14, pp.693~709.
9. Tomaskovic-Devey, D.(1993), “The Gender and Race Composition of Jobs and the Male/Female, White/Black Pay Gaps”, *Social Forces*, Vol. 72, pp.45~76.
 10. Williams, Christine L.(1989), *Gender Difference at Work*,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Wage Gap by Industries

Shin, Kyung-soo

This study estimates gender wage gap by the Korean industrie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sex segregation by industries has not improved.
2. The average wage in 「electricity, transportation, warehousing, financial institutions」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s. On the contrary, the average wage in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wholesale and retail, food, loading」 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s.
3. The gender wage gap in 「electricity, transportation, warehousing, financial institutions」 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s. On the contrary, the gender wage gap in 「mining and manufacturing」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s.

The gender wage gap has declined annually. The gender wage gap in industries with lower wage level is higher. The decline of gender wage gap cannot be interpreted as a relaxa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Key Words : Wage Gap, Gender